전법 일기

적당한 자식 사랑 마음 건강 지킴이

얼마 전 설이었다. 합동차례를 지내는 가족이 많아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절은 여느 때보다 북적였다. 1년에 두 차례, 여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맞아 입춘 때 준비해둔 입춘부와 소원성취부를 나눠주며 안부를 물을 때였다.

"스님! 잠시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한 보살님이 다가와 물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안색은 어둡고 무언가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정들이 있어 갑자기 짬을 내기 부담스러웠지만 상담을 뒤로 미루기엔 보살님의 낯빛이 너무 어두웠다. 나는 예정된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20분 뒤 보살님과 마주앉았다.

"스님,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세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보살님은 따님에 대한 걱정에 매여 있었다. 자식을 향한 애정이 남다르다보니 자식이 잘될 땐 보람을 느끼다가도, 자식이 힘들어할 땐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삶이 후회되고 자책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다보니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벗어날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속내를 전해듣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동안 시간을 두고 보살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조금은 길이 보였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보살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자식을 돕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삶의 목표이자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식 역시 스스로가 힘들 때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대로, 자식 역시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래서 보살님에게 자식을 도와야 한다거나 자식 잘되는 게 내 삶의 전부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알아차리고 멈추도록 하는 수행법을 일러줬다. 또 매일 집에서 우울 속에 있지 않고 부처님 만나러 출근하듯이 절에 당분간 계속 나오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다. 60대 중반의 보살님은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붓다께서 "누구에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고 유훈하신 것이 생각난다. 붓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행하셨듯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홀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찰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심리치료 책을 읽고 있다. 붓다께서 강조하신 길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결실로 맺히기를 늘 기원 드린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② 생명복제, 기술 아닌 욕망

달그림자 아름다워도 결국 가짜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된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진짜와 모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방된 가상의 물건들이 진본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만고에 푸른 연못에 비친 달, 두세 번 건져봐야 거짓인 줄 알게 되리.(萬古碧潭空界月 再三撈摝始應知)

–대혜 종고(1089~1163)

연못 위에 비친 달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짜 달이 아니라는 대혜 종고 선사의 게송은 모조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많은 것이 복사되고 복제되는 우리 시대에 곰곰이 새겨볼 내용이다.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은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어떠한 지침을 묻기보다 어떤 효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왜냐하면 실용적 가치를 전제로 움직이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도덕적 진공 상태'인 현실에서 '철학의 변형'(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을 통해서 의미의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Karl Otto Apel). 그리고 의사소통공동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합의를 부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담론의 중요성을 통하여 고루한 학계와 현실에 민주주의 원칙이 비로소 도입된다. 윤리와 철학이 외면받고 과학과 기술의 편리성이 유행이라 해도 종교와 인문학은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본을 묻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것이 윤리와 종교이다.

진보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
현재 상황은 '도덕적 진공 상태'
철학·종교윤리 적용 초미 관심사
불교, 생명 가치를 불가침에 둬야

'연못에 비친 달'에 비견할 수 있는 복제품들에 대한 담론의 주요 주제는 행위 주체의 문제이다. 누가 생명복제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가? 국가와 과학, 종교와 윤리 이 둘을 저울질해보면 어찌 되는가?

국가와 과학은 배아복제 및 동물복제를 여러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며 옹호하고 있다. 질병의 연구와 치료, 생명의 연장, 영양물질의 생산, 멸종위기동물의 보전, 우수형질의 확대 등이다. 이 논거들은 대부분 현실적 효용성과 경제적 이득에 기반한다.

종교와 윤리의 입장은 인권의 확대 버전인 동물권에 기반한 윤리성, 생명의 존엄성과 정체성의 혼란, 생태계의 혼란과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변질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적 입장은 과학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복제기술에 내재된 생명연장과 관련된 욕망은 대부분의 불교가 추구하는 생명윤리와 공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욕망은 인과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업력을 가속화하고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생명복제 및 배아실험에 대한 생명윤리의 논점들은 생명의 절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체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조작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생명윤리적 비판은 고귀한 생명을 물화시킴으로 목적 자체를 수단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뜨거운 벽돌로 내려치자, 밑바닥까지 얼어붙었다.(燋甎打着 連底凍)

–자수 회심(1077~1132)

불교 생명윤리학은 생명 고유의 가치를 불가침의 권리로 옹호해야 한다. 배아복제와 동물복제 논의는 종래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벽돌을 밑바닥까지 내려치며 검토하고 다뤄야 할 문제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남인도 불교 매력 속으로

얼마 전 설 연휴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를 관람했다. 10년이 넘는 기자생활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는 도통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해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여정을 동행 취재하며 생긴 인도의 향수 덕분인지 전시회가 왠지 모르게 끌렸다.

'스투파의 숲' 전시회는 2000여 년 전 남인도 불교미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룸비니에서 태어나 생애를 북인도에서만 보낸 부처님이기에 남인도의 불교미술은 기존 힌두문화에 더해진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시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풍요를 가져오는 자연의 정령 '약샤(남성형)와 약시(여성형)'다.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육감적인 체형에 다양한 장신구가 인상적인데, 그저 하나의 정령이었던 약샤는 불교를 만나 연꽃을 들고 부처님을 보필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 마카라 조각상과 아쇼카왕이 스투파를 증축하며 부처님 사리에 더한 보석들, 부처님 일대기를 새긴 스투파 조각 등이 전시회를 장엄한다. 부처님을 직접 표현할 수 없었던 무불상(無佛像) 시대, 보리수 아래 빈자리를 향한 경배도 눈길을 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인도의 간다라미술과 달리 작품 전반에서 서구적인 양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매력이다.

박물관을 찾은 날은 설 다음날이었지만 '스투파의 숲'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말은 아니기에 비교적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 자리에 불자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전시회 주제가 불교와 남인도인 만큼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물관 입장에선 '스투파의 숲' 전시회가 흥행해야 또 다른 불교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불자라면 남인도 부처님 친견하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자.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